

박성환씨 한국화 대상

22일 심사가 끝난 제22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작품 '대불공단'을 출품한 박성환(46·전남대 미술과4)씨가 한국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박은주씨가 '명제-dilemma'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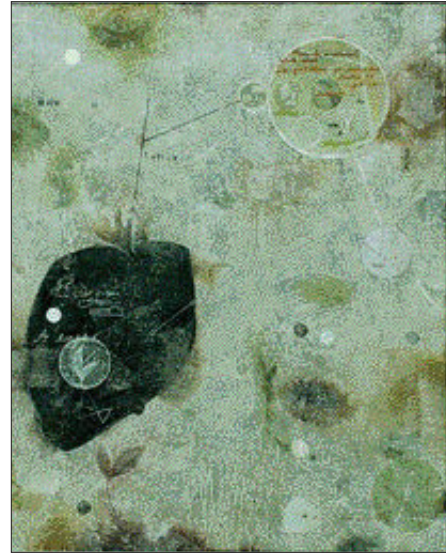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인화=박정남 '묵죽' ▲판화=임미옥 '산사' ▲조각=임선주 '허와 실II' ▲공예=김영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서예=고정순 '주중야숙' ▲사진=전태국 '추파'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당선작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비엔날레 전관에서 전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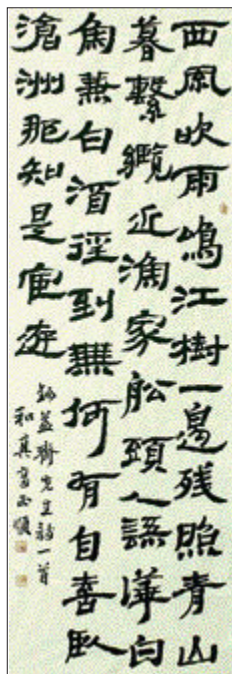
◇한국화=박성환 작 '대불공단'



◇서양화=박은주 작 '명제-dilemma'

제22회 무등미술대전 大賞作

紙上展



◇서예=고정순 작 '주중야숙'



◇사진=전태국 작 '추파'



◇조각=임선주 작 '허와 실II'



◇공예=김영수 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판화=임미옥 작 '산사'



◇문인화=박정남 작 '묵죽'

“공허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공간 찾고 싶었다”

조각부문 대상 임선주씨



“작품 감상자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습니다.”

22일 발표된 제22회 무등미술대전 조각 부문에서 작품 '허와 실II'로 대상을 차지한 임선주(23·전남대 미술과4)씨.

임씨는 지난 5월 열린 광주시전 조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저력을 과시한 신인이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자연석에 구멍을 판 뒤 그 안에 네온조명을 설치하는 조형세계를 선보였다. 그는 “작품을 통해 공허한 공간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각의 특성상 여성이 하기 힘든 작업인데다 졸업 후 진로 또한 불투명해 고민하던 중 이같은 상을 받게 된 것보다 힘을 얻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동경해오던 그는 조대어고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조각이 평면 회화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진로에 대해 뚜렷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각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결산 ■ 주제 다양·기존 작품 탈피한 수작 많아

제22회 무등미술대전 심사결과가 22일 발표됐다.

광주전남발전협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화 198점, 문인화 171점, 서양화 152점, 조각 16점 등 모두 8개 부문에 걸쳐 모두 1천 164점이 출품됐다. 작품수도 지난해 1045점 보다 119점이 늘어 공모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작품의 주제와 소재면에서 기존 작품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한층 다양해지고 다채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성작가의 작품 추세를 답습하는 경향이 여전했으며, 패기 어린 실험정신을 선보인 작품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서양화는 사실, 추상, 구상화 경향의 작품이 주류를 이뤘다. 일반 풍경화 작품은 뚜렷히 감소하는 등 최근 흐름을 반영했다.

한국화는 수묵담채, 수묵채색 부문에서 현대적인 흐름을 적극 반영

한 작품이 많았다. 작품 이해도 면에서도 한국화의 본질과 특성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상작 대불공단은 상상력과 생동하는 조형성이 돋보인 수작으로 꼽혔다.

현대 서예는 과감하게 붓을 사용하는 등 쾌활한 필력을 선보인 작품이 많았다. 판화는 지난해에 비해 작품수가 감소했으나 새로운 매체와 한국 고유의 정서 등이 모티브로 등 장려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조각 부문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분야. 재료와 소재, 형식면에서 다채로웠다. 공예는 조형과 실용성을 살린 우수작들이 다수 출품됐다.

주수일(65·인천대 미술과) 교수는 “이번 공모전에는 여느 공모전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출품된데다 수작들도 많았다”며 “그러나 기성 작가들을 답습하거나 창의성이 떨어지는 작품도 있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부문별 대상·우수상·특선 입상자

한국화	대상=박성환 ▲ 우수상=김선희 이민우 ▲특선=이성종 강일호 김정원 도수연 김보원 김학수 김은자 김성하 박광미 김보미 최미연 장복자 배정림 정이순 강진혜 이수현 정재민 강보희 전영진 이소민 원종근 신희광 신정희 송명희 최선영 윤기욱 한경호 정경화 도진환 조경미 오정아 황연옥 정다운 문명희	공예	대상=김영수 ▲ 우수상=한승룡 천민우 ▲특선=이순욱 박찬홍 ▲특선=장효식 김광희 이재호 정해진 도주희 송미옥 민중기 조성숙 김재윤 김경옥 이정금 이대희 최선주 이재호 정보화 배상숙 이은애 박상근 김은희 설이환 기영락 이상하 송경래 원윤경	서예	대상=고정순 ▲ 우수상=원용호 손행숙 이정철 ▲특선=김국형 최현욱 이미은 장영숙 김삼순 선점숙 심정하 권영원 안미순 문재선 이은순 윤영남 박숙현 남궁화영 박상연 진선영 이옥이 서희 조예현 조동춘 차춘자 최병민 김선종 조순신 박진자 조성용 박지현 김중호 유정아 이혜진 김정희 서동국 이정희 우병민 김양식 이희선 김미영 이준금 임용운 이기욱 김준순 이영희 이재우 황현욱 김순완 박만수 김은자 박성심 박용석 정재석 윤정래 백은하 정경 조재대 장경민 박옥은 김은진 김승규 이만영 박종삼 최희성 김신자 이기숙 김진규 남금덕 함태오 달근 백병석 김원 흥명숙 임형 조병춘 양미성 임승술 이관호 박행수 박윤희 장정희 김명희 송현숙 손복경 이상하 이상숙 이종래 이주영 문종걸 최인숙 정지연
문인화	대상=박정남 ▲ 우수상=김혜숙 김옥진 ▲특선=강이선 정민순 김남주 김선희 황주일 고인숙 정덕순 이영미 김동신 박인옥 박금례 설인수 정재경 박영이 노순환 최은아 구자영 이옥재 송영호 강국희 박연희 최행화 장성경 김유홍	판화	대상=임미옥 ▲ 우수상=조연휴 민경민 ▲특선=조영하 양지선 이선아 최진경	조각	대상=임선주 ▲ 우수상=김정훈 임정규 ▲특선=양재영 남정호 이성용 김지연 김민경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화순 도곡온천 단지내 최고 상업 중심 무인텔 (최신시설, 복층구조) *일 매출 250~300만 보장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3층상가 및 주차장 *보1이전 / 월880만

총장로 4기 5층 상가 *대 53평 건 288평 *보1이 / 월160만 *공시지가 당 760만

쌍춘동 동림지구와 버들마을 사이 *4기 20M도로 점(경사중) *140평 *390만

쌍춘동 광천교회 부근 *아파트단지 최후지 (8M 계획도로 점) *530평 *170만

양동 상업지구 고급주택 *신시가지 대 60평 건 61평 *매매가 2억5천

화정동 신동아와 대주 사이 *대 123평 단층상가 *매 3억2천만

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타이아파트입지, 준주거, 35M도로점 *대 164평

도산동 파랑새아파트 건너편 *20M 도로점 *270평 *220만

화순 영평리 전원주택적지 *대 333평 *12만

5층 상가건물 *광동로라미부근 대지180평 건평470평 *전원주택적지 *화순 남면 주안리 주민들 보이는 전원주택적지 대지 1100평 *10만

이은규 공인중개사

T.269-3949, 010-2002-5555 (동강대학 후문)

1. 북구 유산동 큰 대로 변 말바우사거리~88대니스 코트정사이 대지 90평 매매가→13억

2. 담양군 남면 현천리 광주담양상류 인야 7,200평 (축사부지 145평 허가) 평당 62,000원

3. 담양군 담양읍 반용리 담양공고 뒤 298평 매매가 평당 40만원

4. 상가주택 매매 북구 두암동 대지 39평 건평 69평 3층건물 용자:8,500 2004년 신축

5. 상가 임대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최고상권(유동 인구 많음) 12평(청고 별도) 보 2,000/월 100 권리금 2,500만원

6. 상가매매 북구 문흥동 대지 57평 건평 60평 매매가 1억2,500

토지, 빌딩, 아파트, 상가, 주택임대 성실 책임중개

LC타워(주)

☎(02)972-8004, ☎010-7154-68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급)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종분할가능▶

-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0인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삼두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 광주 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 기도원 부지 :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 장성 잔여면 도로에 접한 생산농지-현금2억
- 병원 신축부지 :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 카센타부지 광산구 유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변
- 상가부지 양산동 구화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450만원
- 북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청역부근 마북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층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마북동 화정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02)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평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찰시 임차인 수의이 기대되는 물건 상담환영!!

- 철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81평 준공1년된 건물 건평가 25억/최저가 12억
- 동한동 2층 고급주택 대지211평 2002년도 준공된 건물 건평가 5억 5천/최저가 2억5천
- 화정동 티미빌딩 현재 정려예식장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300평 건평가 35억/최저가 15억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1,000평 광주대입구 남구 전월동 급호아파트와 평당 300만원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급매

- 서구 용암동 자연녹지 7,400평 인 도화골프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현재 성업중인 매매가 60억/주변 지역 개발가능성이 높은지역

간곡 부동산 물건매매

- 윤양동 구.하이마트부지 1,000평 대지117평 복합신축빌딩의향 평당 7백만원
- 병암학원주유소상가건물 신축부지 화정동 4기리 지하철역 도로변 코너부지 320평 매매가 평당 500만원
- 담양 청평-대덕불가불간 도로변 공창부지-펜션-모텔-전원주택-카페-기대시설-미니골프장등도 조합된 임야 14,000평 매매가 평당 15만원

동림동 생산농지 긴급매매

동림동-신기리 방면 생산농지 1,050평 매매가 평당 40만원 평당 최고-0지역 기타 근린시설 신축부지 적합한 현금투자 최적지 주민시설 평당 60만원 신축 주민시설상권 긴급매매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 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회원, 공무원, 경찰, 기타관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예 앞 ☎ 675-8500 접수중 (광주대학교 입구) www.ccg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02)229-1140, ☎010-602-23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신복사건-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의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